

가정예배 안내서

7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증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4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레미야서 서론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한 때였다. 당시 신흥 바벨론은 메대와 연합하여 앗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켰고(BC 612년), BC 610년에는 하란을 탈취하여 앗수르 왕국을 붕괴시켰다. 바벨론은 BC 588년에 유다를 침략하여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장악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 그가 소명받은 때부터 BC 580년경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0여년간 예언활동을 했다.

예레미야서의 첫부분(1-39장)은 유다왕국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40-5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인해 실의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 중에는 유다 산간지방에 숨어 있던 자들(40-43장)과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44장)이 포함된다.

예레미야서의 핵심구절은 2:14-17과 4:23-28이고 주요 낱말은 ‘심판’이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사랑의 영원성’이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는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야 예언을 통해 ‘의로운 가지’와 ‘새로운 가지’, ‘새로운 언약’을 알렸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1

(금) 레갑족속의 모범적 행위

찬송 / 379장 본문 / 렘 35:12-19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35:19)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족속들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였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귀를 기우리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복종만 하면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혼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갑족속들은 자신들에게 조상들의 명령을 깨우쳐 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19).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것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레갑족속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므로 복된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13:2)

하나님은 베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1-7). 허리에 두루는 베띠를 하나님께서 바위틈에 감추라고 하시고, 다시 물가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것을 파고 띠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띠가 상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에게 행하신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브라테 강쪽에 있는 이방족속의 잡신들에게 홀딱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에게 썩은 허리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속하여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없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워 행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합니다(벧전 5:5). 성전 조차도 예루살렘의 교만거리가 되자 손상되고 훼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창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에 강전함을 주소서.

3

(주일) 다윗의 고통과 치유

찬송 / 82장 본문 / 시 13:1-6

『내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13:5)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 탄식이 귀한 것은 세상의 영광과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우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더욱 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5, 6절에서는 기쁨으로 돌변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것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오묘함입니다. 믿음은 캄캄한 밤중에도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온 승리의 예감은 벌써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확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확신, 여호와를 찬송할 확신,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입곱 배의 영력을 주소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13:15)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16). 또한 양무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18),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27). 반면에 교만을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7).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신을 좇아 우상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파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방의 성읍들은 봉쇄될 것이고 온전히 잡혀가리라' (19)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27).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16).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17). 더욱 타인의 죄는 우리가 슬퍼할 재료로 삼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교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14:12)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조금만 부족하여도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에도 전능하신 분이 왜 물을 주지 못하느냐는 한탄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데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뉘우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악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오직 축복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칼과 기근과 열병이라는 징계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데도 내리지 않습니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구할 때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 / 기도에도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하소서.

『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양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 』(14:12)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복을 만드는 제조기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거짓 선지자가 무성하게 됩니다.

본문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만을 예고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축복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인기를 누리기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눈물흘리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하고 축복만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보내면서도 중심으로는 축복만 원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진노의 채찍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양망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양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만 좋아하지 말고 내 죄를 지적하는 뼈아픈 말씀을 더욱 더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소서.

『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엄증이 났음으로라 』(15:6)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는 데 엄증을 느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복된 죄악과 회개 때문이요, 둘째는 중심의 돌이킴과 죄에 대한 단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죄들을 계속 반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하나님의 엄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증이란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증은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증을 일으키시면 비록 모세나 사무엘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말은 완전히 징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증과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증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죄와 단절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엄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합시다.

▶ 기도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경성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소서.

『 만일 하나님께로써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 』(5:39)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문제를 그르칠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에 대하여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을 돌아보기는 커녕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법사 가말리엘의 변호는 모든 시대의 교회 문제 해결에 깊은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 율법의 전통을 엄수했고, 공회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공회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품위를 보여주며 사도들을 정계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매사에 주의함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이여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들과 일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배가의 성장을 주소서.

9

(토) 탄식과 응답

찬송 / 507장 본문 / 렘 15:10-21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5:1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예레미야에게도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회의를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만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자주 곤경과 비난에 처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극복해 가는 예레미야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힘든 세파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 기도 /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이 땅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 위에 사랑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4:1)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 없이 혼자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남이야 무어라 하든지 나만 좋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을 위하여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잘못된 일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있는 자들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무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계십니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져서는 아니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더욱 성령충만하여 잃어버린 천국백성을 모두 찾게 하소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16:1)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선지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여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신 생활(1-4)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혼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간주되었던 사실과 비교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가에 대한 출입금지(5-7)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혼가에 대한 출입금지(8-9)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혼인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고 신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신혼의 집에서조차 기쁨이 끊어지도록 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행위 계시’를 명령하심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전달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호세이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통해서(호 1-3장), 이사야는 그 가족을 통해서(사 8장),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겔 24:15-27)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주님의 뜻가운데 복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소서.

『.....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16:16)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면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두 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18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고, 14, 15, 19-21절에서는 그의 무한한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들(어부와 사냥꾼)을 통하여 유다에 가혹하고 철저한 심판이 행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악한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으며 우상과 가증스러운 물건으로 하나님의 산업인 땅(출 15:17; 수 22:19; 시 79:1)을 오염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였으므로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로 초래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새로운 해방으로 귀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분명한 공의적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계속적인 반역과 그에 대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며 낙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되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소서. 사랑부와 예배다부원들에게 더욱 크고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 ㄹ(17:7)

본문은 심판에 관한 일반적 예언(2-20장) 중 일곱 번째(16:1-17:18)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유다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같이 거듭하여 말하는 이유는 심판이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과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가올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책을 마련하려 하지 말고 심판 후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현재의 시점에서 취할 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5-11절에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힘과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웃 나라'나 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까지의 그들의 행동을 과감히 버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릎꿇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으나 범죄할 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선교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견고히 서서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소서.

『무릇 여호와의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17:13)

본문은 유다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 얼마나 부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수 차례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재앙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축복의 원천자요, 수여자요, 또한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기록한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에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22:1)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자기 변호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전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유대교의 정통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낱말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확실한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체험, 은혜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상보다 어려운 이론보다 단순한 은혜의 체험이 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똑같이 집회에 참석하여 바울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감동도 없는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나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크게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바울의 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야 참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바울도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잠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받는 순간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강건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에 함께 하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충만함으로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잠들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써주소서.

『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 』(18:6)

본문은 선지자의 여덟번째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만드는데, 그것은 모두가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사상이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징벌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잘못을 행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살게 됩니다. 회개할 때 죄의 진노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축복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을 알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어떤 집단도, 아니 국가와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토기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됩니다. 또한 어떤 역경과 문제를 당해도 결코 두려워 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애굽)의 선교의장이 확장되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 (15:1)

주의 전을 항상 사모하면서 사는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어떠한 자가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인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에 따라 진실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험로 참소치 아니하고, 행악지 않고, 꾀방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꾀방하며 시기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서원한 것을 꼭 지키는 자가 주의 전에 거할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른 것에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말아야 하며 고리대금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죄없는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며,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며 부활하신 주님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18:19)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선포된 회개의 메시지가 백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레미야는 강경한 어조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참혹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예고에 대한 경고를 마치 미친 사람이 부르짖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예고 메시지를 책잡아 반역자 또는 신성모독자로 몰아부칠 계략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차 있었고 회개할 상태가 전혀 없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무익한 일인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간곡한 회개 축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남편들도 죽게 되므로 부모는 자녀를 잃어 슬퍼하게 되고, 부인들은 과부가 되고 어린 자녀들은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잘못을 깨달아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지를 선포한 자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도 /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물렸던 것은 바로 행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안식년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안식절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위에 새 힘과 물릇듯 부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소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19:10)

토기장이 비유에 이어 또다시 유다의 패역함과 그에 대한 징벌을 보여주
시기 위해 오지병의 상징적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지병 하나를 들고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촉구하
라고 했습니다. 힌놈의 골짜기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
이 있는 곳이었습니 다. 이곳에는 암몬 족속의 우상인 물레와 모압 족속의
우상인 바알을 모셔놓고 지성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습니 다. 이런 곳에서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
습니 다. 유다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이곳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들에 의해 백성들이 죽게 되어 살륙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상징으로 오지병을 그들 앞에서 깨뜨리
면서 깨어진 오지병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유다백성들 역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은 변할 수 없
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 계
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도 아니했
으며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지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때는 오지병이 깨어지듯
우리들도 크게 징계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는 오지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사역의 장을 넓히시고 돕는 자를 많
이 보내주셔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20:9)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스홀과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하면서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유사장인 바스홀은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는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서 때리고 포박해서 감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과 모든 유대백성들의 멸망을 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족의 정서를 거스리는 듯한 예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선지자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입니까?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주소서.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사역이 잘 마무리 되게 도우시고 다음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 』(21:8)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시드기야 왕의 부탁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이고, 둘째 단락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유다 왕이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히려 백성들이 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 앞에는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즉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사망의 길을 좇았으며,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위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하는 수 없이 기도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하지 못하여도 긍휼을 베풀실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순간마다 생명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다음 사역지를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 』(6:1)

본문은 신앙의 선배요 교사된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교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상대방을 이해하며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쳐놓겠다는 의욕만 앞서서는 안되며, 기꺼이 그 짐을 내가 떠맡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부과된 내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범사에 모범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성령으로 심은 것은 이 땅에서도 거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 즉 천국에서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내심을 갖고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과 사랑에 빛진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야 할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소서.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22:3)

우리들은 흔히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국도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요시아 왕의 급작스런 전사, 계속해서 휘몰아쳐 오는 국제 정세, 즉 강대국의 힘겨루기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받고 싶어하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왕과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기대에 찬 약속을 기대했으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흔히 듣고 아침 저녁으로 외는 토라 신명기를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공평을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구하고 무고한 자를 확대하지 말며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말라 이 말씀을 귀기울여 들으면 옛날의 영화가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예언을 듣지 않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빌 3:1)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자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늘 듣는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맞볼 수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기울여 준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함께 하소서.

7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 (16:8, 10)

이 시편은 신앙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절박한 시입니다. 저자는 주변 인물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피를 그 제단에 부어 드리면서 저자에게도 그 제사에 동참하라고 강권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우편에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적 갈등과 두려움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5-28절의 오순절 설교와 13장 35절의 안디옥 설교에서 이 시편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거나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는 이땅의 제한적인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기뻐하며 안전하게 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한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죽는 자리에 이르러도 용기있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세상적인 유혹과 위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용기있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었나니 ……」 (22:16)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와 무고한 자를 돌아봄으로 정직한 다윗왕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선왕(先王) 요시아와 그의 아들 현왕(現王) 여호야김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 반문합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아주 냉소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자신도 애굽왕 바로에 의해 형 대신 왕으로 세워진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부역을 강요하고 거대한 왕궁을 재건축하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는 나라를 건지는 길이 우선일진대 여호야김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방법으로 왕권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공평과 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임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으나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너의 부친은 왕궁을 짓지 않고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봄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대한 계획을 통한 과시보다 공평과 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자가 됩시다.

▶ 기도 /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 (23:6)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을때”(5절)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시면서 초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먹는 거짓 이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유혹에 끌리지 맙시다. 또 예수님은 “다윗에게 속한 의로운 가지”(5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세계와 땅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왕께 충성을 바치는 신하가 됩시다. 또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공평이 충만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좇아 우리도 의로운 빛이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을 하다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것처럼 마귀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무슨 고통스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불안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나의 심령과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 기도 / 주님 모든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넘치는 평안을 가정과 사회에 주소서. 조국의 통일을 복음으로 이루어 지도록 더욱 기도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힘쓰는 충성된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 들었으며 ……』(23:18)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마귀의 작전에 모두 휘말려 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더러운 음란죄에 빠졌고,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의해 움직여졌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사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와의 회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죄악을 내뱉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회의시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회의장 밖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결정사항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회의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성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까?

▶ 기도 / 하나님의 회의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석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공의로운 정치로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23:29)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이 때문에 태우는 성질이 있고,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도 마치 불과 같이 인격을 멸망으로 불태우나 이런 죄악의 불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 앞에는 압도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거어들어오는 죄악의 벌레들을 진리의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겠습니다. 차갑고 미지근한 심령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불과 같은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듣고서 고백한 것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강박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고개 숙이지 못하고 뻗뻗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며 수술하는 것은 지식도, 경험도,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옆에 있던 흉악한 강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여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불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령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에 질적, 양적인 부흥을 주소서.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 전하리로다』(78:4)

이스라엘이 소유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체적 계시를 통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신앙이란 매일 매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과거의 신앙 체험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 교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교사의 입장에서 교훈을 시작합니다.

시인은 열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회고하려고 합니다(2-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증거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5절). 그러므로 시인이 전하는 교훈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온 것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있는 행위-출애굽 사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후(출 20장)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 여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받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증거와 법도를 알아야 하며(6절)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7절), 패역한 선조들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8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범죄케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와 행동의 최종적인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받아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금요집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한 광주리에는 …… 좋은 무화과 ……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24:2)

본장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유다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의 길이 환상(무화과 두 광주리)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또한 4-10절까지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좋은 무화과는 장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민들 중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남은 자들의 귀환을 지칭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방까지 포함한 전우주적인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악한 무화과는 당시에 있어서 바벨론에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항거했거나 또는 애굽이나 바다 건너 이방 나라로 도망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다(9:7).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궁극적인 파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는 사망의 길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시 1편). 만약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처럼 반역과 배도의 길을 걸으면 멸망으로 귀결되고, 소수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면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잊지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마 7:13, 14).

▶ 기도 / 언제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17:1)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려는 의인의 간절한 호소가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본시는 ①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전반부(1-5절)와, ② 적의 맹렬한 공격에 대한 보호를 탄원하는 중반부(6-12절), ③ 궁극적 승리에 대한 기대와 영혼의 만족이 표현되고 있는 후반부(13-1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를 쓸 당시 역사적 상황은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에 의하여 반역을 도모하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삼상 24:9).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좇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악한 모양을 추종하지 않는 행동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직함이 밑바탕이 되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호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정직함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미사 여구를 구사하는 달변이나 호소력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의 정직함을 알아 항상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 기도 / 나의 생활이 정직한 생활이 되어 능력있는 정직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 8월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쉬지 않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6 과

부모와 자녀

- 성경본문 : 렘 35:12-19
- 중심요절 :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
하도다(35:16)
- 찬 송 : 357장, 415장

1. 서 론

요즈음 우리들의 사회는 부모에 대하여 불공경,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다같이 비극이 됩니다. 부모들은 섭섭한 마음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나답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약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은 요나답이 정해놓은 명령들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요나답의 자손들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이라 불리웠던 사람은 레갑 족속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하 10:15-31에 보면 예후가 기원전 84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싸우던 중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후는 여호와께 대한 뜨거운 마음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나답도 예후의 이러한 전투적인 신앙심을 본받게 됩니다. 여호나답은 여호와께 대하여 더 큰 열정을 나타내어 극단주의자라는 평을 받

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주의적 성격은 여호나답이 자기 가족들에게 부과한 규칙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나답의 자손들도 200여년이 지난 기원전 600년경에도 여호나답이 명한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 자손에게 포도주를 권할 때(렘35:5-10) 그들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좋은 집도 짓지 않고, 규칙적으로 씨뿌려야 하는 농작물을 기르지도 않고, 수확할 때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돌보아야 하는 포도나무 경작 같은 정착된 농경 생활의 모든 형태들을 배격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을 광야생활 당시(렘2:1-3)와 마찬가지로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외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이 정해 놓은 규칙들을 순종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렘 35:18-19).

3. 본문 관찰

1)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예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13절)

2) 레갑 자손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14절)

3)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15절)

4)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17절)

5) 순종하는 레갑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19절)

4. 삶의 적용

1) 레갑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 지난 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웃 어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나 명령들을 우리들이 충성되이 지켰는지 돌아켜 보며 회개의 기도와 결심의 기도를 합시다.

3) 구역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전통적 신앙을 지켜 나갈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

5. 결 론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자자손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유산 중에 유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장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때로 자녀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자녀들은 감당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는 집안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27 과

핍박 속의 교육과 전도

· 성경본문 : 행 5:33-42

· 중심요절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5:41-42)

· 찬 송 : 268장, 340장

1. 서 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교육과 전도입니다(마 28:19-20).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주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은 편안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적대 관계 속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칠 때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보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초대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적과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옥에 가두기도 (5:18)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풀려

났습니다. 이러한 위태한 형편에서도 사도들이 다시 가르치며 전도하자 다시 잡아 들여 국문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의 박사였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사도들의 재판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말로써 사도들을 위기에서 모면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을 그의 스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행22:3). 그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은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구하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의 학문을 교회를 보전하는데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상관 말고 버려 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8-39절)

3)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40절)

4) 체직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나온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41-42절)

4. 삶의 적용

1)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부딪치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2)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하여는 좋은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교육과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린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받은 핍박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3) 핍박을 무릅 쓴 사도들의 교육과 전도에 대하여 성령님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말하여 봅시다.

5. 결 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많은 시련과 핍박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들 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육과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며 충성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28 과

바울의 증언

· 성경본문 : 행22:1-13

· 중심요절 : 부형들이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22:1)

· 찬 송 : 388장, 393장

1. 서 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은 쓸데 없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 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큰 자로 자처하면서 교만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사울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고 철저히 낮추고 작은자 곧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졌는지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뜨거운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바울은 여러차례 유대인들의 시기로 전도 활동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박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 왔을 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체포되어 죽을 뻔하였던 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지만 (21:26) 아시아로 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을 잡도록 충동하였습니다(21:27). 당시 유대법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 가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는데 (21:28)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성전에 들어간 줄로 오해하였습니다(21:29).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자 천부장 루시아가 달려와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바울이 결박 당한 채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 본문 관찰

1) 바울이 엄격한 유대적 전통 속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3절-5절)

2)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5절)

3)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6-7절)

4) 사울이 주님으로 부터 받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10절)

5) 빛으로 인하여 사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11-13절)

4. 삶의 적용

1)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울과 같이 믿는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주셨는지 각자 받은 은혜에 대한 증언을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행할 일을 정하여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할 일도 정하여 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각자가 깨닫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3) 과거에 우리들이 받은 사명을 태만히 한 것을 회개하며 충성스럽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5. 결 론

바울을 통하여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하여는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전에 교만하였던 나 자신의 모습은 부수어 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쳐 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러한 철저한 변화를 사모하며 매일 매일 주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제 29 과

교사와 학생

- 성경본문 : 갈 6:1-10
- 중심요절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6:6)
- 찬 송 : 342장, 377장

1. 서 론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사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배움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선생님하면 부모님 다음에 귀하신 분으로 존경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였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사 중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학생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참 선생이셨습니다. 교사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사들을 존경하고 교사의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본문배경 연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간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아닌 자유의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는 유대교의 율법을 통하여 구

원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이 슬며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유대인의 절기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사도직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이신득의의 교리(3-4장)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섞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쳐진 복음과 전혀 다른 가르침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로이 주어진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강조하며 율법의 멍에 아래 다시 묶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안팎에 있는 범죄한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실제적인 문제가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교회 내에서 형제가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1-2절)

2) 범죄한 형제에게 접근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1절)

3)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6절)

4)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두 종류는 무엇입니까? (8절)

4. 삶의 적용

1) 우리는 범죄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형제를 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 회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 우리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봅시다.

3) 우리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5. 결 론

갈라디아 교회에 두가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도 두 가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되고 썩어질 것 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의 씨를 뿌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때로 어긋난 길로 가려는 형제를 만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고 가르쳐 주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의 수고에 동참하여 신령한 은혜를 나누도록 힘쓰도록 합니다.

제 30 과

후손에 대한 신앙 교육

· 성경본문 : 시 78:1-11

· 중심요절 :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78:7-8)

· 찬 송 : 343장, 349장

1. 서 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배우는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대에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적으로 멀리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시간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데 우선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도 배워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시편 78편은 역사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자비를 보여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의 어려운 때에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옛적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기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셨는가를 기억하여야 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행동하였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이 마음깊이 간직하여야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에 걸친 이야기를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이 쉽게 배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78편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적혀 있는데 아삽은 레위의 족속이며 게르손의 자손이었습니다(대상 6:39). 다윗은 예배를 위하여 아삽을 성가대의 대장으로 세웠습니다(대상 16:4-5).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만든 시라는 뜻입니다.

3. 본문 관찰

1) 시편 기자가 하려는 교훈의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3절)

2) 시편 기자는 이 교훈의 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4절)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명하사 자손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6-8절)

4)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10-11절)

4. 삶의 적용

1)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자녀 교육 가운데서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하여 봅시다.

2)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중 중요한 것 몇가지를 말하여 보고 때때로 잊고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3)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여 보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5. 결 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자녀들에게 숨겨 놓아서 안됩니다. 사람은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양식을 먹어야 커서도 건강이 좋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좋은 영의 양식을 섭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주어 튼튼한 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 만을 배우도록 강조하지 말고 자녀들의 영혼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 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